

사순 제3주일

기도서 260면(다해)

제1독서: 출애 3, 1-8ac. 13-15

제2독서: I고린 10, 1-6. 10-12

복음: 루가 13, 1-9

숲정이

“잘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루가 13, 3).

강론

소리

회개의 선물

농민은 “밥” 인가?

최상범 신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볼 때 우선 드는 느낌은 끊임없이 불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란 느낌이다.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또 반야들이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나면 하느님은 더 큰 섭리와 은총의 손길로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재촉하셨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마치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방식과도 흡사하다. 짧은 사제 생활을 뒤돌아 볼 때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다시 한번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느님이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회심하라고 부르고 계신다. 더 늦기 전에 하느님 편에 속하라고 부르신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느님을 향하고 그분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소용되도록 살라고 재촉하신다. 돌 하나에, 바람 한 줄기에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 존재는 그분의 도구로 하루를 살기에 마땅하지 않겠는가!

빵을 쪄내는 예절은 회심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그 행위는 스승 그리스도의 고별 만찬을 기억나게 한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훈계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신원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별 말씀조차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순기간 동안 십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새롭게 다시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목말랐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바위를 깨고 물을 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찢려 피와 물을 쏟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나눔과 쪄개짐의 삶은 더 큰 풍요로움으로 인도할 것이고, 아직도 계속되는 우리의 빠스카를 이끌어 줄 것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볼 때 우선 드는 느낌은 끊임없이 결단내리도록 재촉하시는 분이란 생각이 든다. “고구. 여기서” 하느님의 길을 택하는 결단을 마무리하면 마르는 만큼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의 시간만 흐른다는 것은 이미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의 회개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께 더 늦기 전에 우리 회개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民主主義 국가에선 사회의 기능이 다양하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욕구도 많고 그 목소리 또한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과거 우리가 지향해온 국가 목표는 반공과 통일, 그리고 경제개발이었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포용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특히 경제개발에 따른 제반 사회불균형은 질름발이의 성인국가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왔다.

외체가 좋고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무역역조가 생겨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압력이나 받아야 하는 입장까지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빈부격차 또한 정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농민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농경사회에서의 「농자천하지대본」은 이제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다양한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농민들의 주장 또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소값 파동이 잠잠해 지더니 지난해부터 불붙기 시작한 고추수매요구나 수세(水稅)폐지운동이 그들의 주장을 집약하고 있다. 번지고 번진 농민들의 주장이 울분으로 변하면서 13일의 여의도 사태까지 몰고 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농민의 한맺힌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3일 「여의도 사태」를 단순한 농민의 폭동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는 그러한 알뜰한 수단으로 농민들을 잘도 속여 왔지만, 이제 안된다. 진정 그들의 손에 삼과 곡쟁이가 들리기 전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가난한 농민들 그리고 그들의 가난한 자식들을 경제개발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 후진국에 원조하고, 무역 후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닌 바로 영광된 우리 조국임을 그들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숲정이 산책



회 개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마르1, 14)

예수께서 광야의 시련을 이겨내고 나서 사람들에게 들려 주신 ‘첫 말씀’이다.
즉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한 첫 관문이 곧 ‘회개’라는 말씀이다.

마태오 복음 사가 역시 예수님의 첫 전도 말씀으로 ‘회개 하라.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마태4, 17)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회랍말 ‘메타노이아’란 말의 우리말 번역이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옛날 신자들은 ‘회두(回頭)’라고 썼다. 흔히 쓰는 ‘통회’라는 말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즉 어떤 잘못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의지적이고 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의역한다면 ‘회개란 삶의 목적 전환’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세상 것으로부터 하느님에게로,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사순절도 3주째로 접어 든다.

온갖 세상 것들에게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느님에게로 향하기 위한 시련과 극기에 전념하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부활이 그리 말 만으로써의 부활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기뻐하는 거듭 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세상을 맞는 은총의 사건이 되게 하는 시기인 것이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를 향한 달음질인지 꼭 한 번 짚어 볼 때가 온 것이다.



성서와 함께

38. 성서의 언어(C) : 신약성서

신약성서는 서양언어의 근원을 이루는 회랍어로 씌어졌다. 회랍어는 우리 말의 가로풀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고 읽어 나간다. 회랍어는 생김새는 히브리어보다는 우리에게 덜 생소할 것이다. 가끔 수학 공식이나 화학 방정식 같은 데서 회랍어 알파벳의 몇몇 글자들을 발견했으리라 믿는다. 요한복음 첫 구절을 옮겨보자.

그런데 성서에 사용된 회랍어는 회랍문화의 황금시대 때 통용되던 고전 회랍어와 똑같지 않다. 성서의 회랍어는 “헬레니스적(Hellenistic) 회랍”이다. 헬레니스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에서 분리되어 나온”이라는 뜻인데 알렉산더가 전 세계(그때까지 알려진 바로)를 정복하고 회랍인들이 아닌 민족들에게 회랍 문화를 보급시킨 데서 그 유래가 기원되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헬레니스적 세계, 헬레니스적 시대라는 말들도 생겨 났는데, 그것은 회랍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회랍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세계와 시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때때로 신약성서의 회랍어를 “코이네 회랍어”라고 부르는데 일반 회랍어 또는 일상 회화체의 회랍어라는 뜻이다. 그러나 코이네 회랍어로도 문어체 형식의 문학작품을 훌륭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물론 저자거리에서 쓰이는 거치른 구어체의 문장으로 엮어낼 수도 있고 문법적이고 지성적인 문장도 구성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마르코 복음과 요한 묵시록은 회랍어 문장이 거칠고 비 문법적인데 반하여, 베드로의 첫째 편지, 히브리서, 그리고 특히 루가의 두 저서인 제3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매우 지성적이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이다.

신약성서 여기저기서 가끔 회랍적이 아니라 아라미아적인 문장 구성들을 만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아라미아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랍어로 직역해 놓았기 때문이다. 거치른 회랍어 문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마르코는 예수의 언행을 기록하면서 가끔 아라미아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곧 이어 회랍어로 친절하게 번역을 해준다. 이것은 성서 작가가 사건의 중요성과 실제성을 박진감있게 나타내기 위해 고안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탈리다 쿼”(소녀야 일어나라! : 마르 5, 31), “에파타”(열려라! : 7, 34),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 니?”(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 15, 34) 등이다.

○ 결혼예물 ○ 품질보증 ○ 원제품 진열판매
○ 신용분위 ○ 주문생산 ○ 보석감정
국산자수정,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오팔, 비취, 산호 등 각종 천연보석 가공 판매
교우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리 귀금속 보석 가공 공장
광산 직수입 도매

그린월드
최현숙 (요셉파나) ☎ (0653) 51-8301

추업
개밀알머리방
양승란 (마리아)
전주시 효자동 1가 205-1
☎ 87-0289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오거리 나정형외과 앞
☎ 74-1123-3-6709

잡 관!

‘여기 좀 도와 줍시다!’

(농촌아동을 위한 원평 무료 유치원)

참으로 말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말 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단체도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말하는 기술도 고도 발달하여 순간적인 감동을 일으키므로 맥 없이 웃고 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의 장난일 수가 많읍니다. 진정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 보다는 작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풍성한 말씀과 함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 또한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는 곧 그 진실성을 의심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행동없는 교회, 말만 무성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겠읍니다. 이에 꼭 필요한 교회,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세상을 도우주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골의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원평 천주교회- 이는 김제군 금산면에 위치한 신도 팔백명의 작은 성당입니다. 그럼에도 겁없이 수천 신도의 큰 성당들도 못하는 큰 일을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 자녀들을 위한 무료 유치원을 개설한 것입니다. 뜻이야 좋지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잘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이야말로 모처럼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도와 줍시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모습의 교회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다음 품목중 도와 줄 수 있다고 생각 되어지는 품목이 있으면 명기된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 ‘원평 무료 유치원’의 성공을 지원하며 뜻있는 교우 여러분의 도움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실 물품」

전축, 환등기, VTR, TV, 책상, 책장, 장난감, 세탁기, 난로, 그림책, 가스렌지, 봉고차
 연락처 : 김제군 금산면 원평 천주교회 전화(0659) 43-0880
 주입신부 : 전 종복(요한) 온라인 : 국민은행 506-24-0057-385) 전 종복 앞

교 구 소 식

1. 본당 사회복지부장 · 차장 애령부장연수회 : 5일 (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참가비 3,000원
2. 사목방문 : 7일 (화) 오전10시 교구청, 센타, 농장, 사회복지회
3. 한마음 한몸 운동 헌혈 : 신동천주교회, 송천동천주교회 26일 10시
4. 중등부 교재연수회 : 중학생들의 의무 교리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교구 전체에 통일된 교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교재연수회를 갖읍시다.
 - 일시-3월5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 장소-가톨릭센터 · 대상-중등부 교리교사(학년 별)
 - 내용-교재연수(각학년) 종교심리, 교리교수법 등
- * 중등부 교리교재 신청
 - 교재-부산교구 발행 ‘학생교리’(교구전체통일) · 신청-교육국
5.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3월2일(목) 10시~16시 덕진천주교회 미사도구, 도시락
6.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교육 : 28일 오전10시 센타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7. 효자우전 성당 수녀원 전화신설 : 87-0711, 용머리성당 사무실 : 87-0411
8.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교구이사회 : 3월1일 오후3시 군산월명동 성당
9. 성모시가지회 : 3월1일 오전10시(성인) 효자동성당 직장인-청년 오후6시
10. 전주 가톨릭 사진작가 회원모집 : 첫모임 2월28일 7시 센타 휴게실, 자격-기존 작가 및 사진에 관심있는 분, 연락처-교구청 홍보국(85-0011)
11. 고창 용반공소 기공식 : 3월 1일 오후2시 장소-고창군 흥덕면 용반보건진료소 정문앞 주례-김환철 신부님

요십이 (812) 김병오



신용과 품질을 보증하는...
전주왕궁가구
 이태리가구(직매장)
 각종 나전칠기, 밀집, 티크상 및 침대, 화장대, 진장 (혼수장 특별우대)
 유숙자(수신나), 국 상호
 ☎ 84-5677(자택) 84-8159(판)

28년여 뛰어난 신용기술
전주현대안경원
 (교우 특별우대)
 김 문곤(요셉)
 전주우체국 후문앞
 ☎ 83-8844-84-3744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 도
 ☎ 84-2628

☎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위 상양 (프란치스코) · 김 병희 (클라리)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전주시 고사동 2가 1-13 원주농협 · 우신호텔 앞

“발표력을 기릅시다. 웅변을 배웁시다”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구.서종로터리) ☎ 3-3284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 앞) ☎ 4-3948
 호자웅변종합학원 (호자병용APT 앞) ☎ 83-8331~2
 원장 유 병철 (베드로) · 원감 박 경애 (안젤라)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 입니다.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사제관 2부강 : 사순절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전통성당에서 있습니다.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사순절 특강지구: 28일 저녁7시30분-3월1일 저녁7시30분
2. 새신자 가정방문: 3월2일 중노1가 1,2반 중노2가1,2반 3. 레지오 선서식: 28일 어머니미사 3월1일 저녁미사 4. 청년피정: 4일 3시-5일5시 고졸이상자 모두 참석바람 회비5,000원
5. 반희장모임: 3월3일 10시30분
6. 사목회 상임위원 소집: 27일 저녁8시
7. 사회복지·애령회 부장 차장연수회: 5일 9시30분
8. 실험정기총회 임원개편: 이사장-이홍재 부이사장-김용환 이사-배기장, 박종용, 이대환, 김준택, 박일천 감사-박태복, 노인석, 조홍기
9. 남성올드레아: 5일 공식미사후 10. ME 장미팀 모임: 3월3일 7시30분 11. 축 결혼: 5일 12시 신랑-노병천(달당) 신부-김진숙 □지난주봉헌금: 623,820원 □교무금: 486,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삼회: 오늘 오후2시
 3. 복자실험 정기총회: 오늘 오후2시
 4. 사순절 특강: 28일 오후8시 전통성당 전신자 참석바람 5. 밀알회: 3월1일 오후6:30 6. 제대회: 3월2일 오전10:30 7.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3월3일 오전11시
 8. 십자가의 길: 3월3일 저녁미사후 9. 성체강복: 3월4일 저녁미사후 10. 사목회: 3월5일 저녁미사후 11. 대건회: 3월5일 공식미사후
 12. 부녀회 임원개편: 회장-전삼순(누시아) 부회장-성금순(가타리나) 서기-조금순(베로니카) 회계-최경윤(가타리나)
-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정동민 ②김하영
봉헌-정동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윤귀자
독서①육경수 ②이현정 봉헌-육경수씨 부부
□지난주봉헌금: 535,750원 □교무금: 848,0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1. 제대회: 공식미사후
 2. 가정방문: 28일-대관 료동 1일-원의암 게월 2일-공기(구역미사)
 3. 성체강복: 2일 10시30분 미사후
 4. 협회: 28일-외·내어두 석장 1일-신홍, 백암, 서당 3일-내정, 색장
 5. 사목회: 4일 저녁미사후
 6. 꾸리아 창설: 다음주 공식미사후
 7. 울드레아: 오늘 저녁7시
- 지난주봉헌금: 210,690원 □교무금: 83,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환웅
수녀원 84-2276

* 3월은 요셉성월의 달입니다.

1. 회의: 꾸리아-오늘 오후2시 사목회-3월1일(수) 오후7시30분 울드레아-3월2일(목) 오후7시30분
 2. 알림: ①오늘은 2월분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②사순절특강-2월28일(화) 오후8시 전통성당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③십자가의 길-매주 금요일 미사후 신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④사회복지부·차장 애령회부·차장 연수회-3월5일 가톨릭센터 ⑤축! 푸르실리스타 탄생-김요셉(길석) 수고하셨습니다. ⑥성모승천 영세반-예비자 교리신청-많은 인도바랍니다.
- 지난주봉헌금: 430,630원 □교무금: 248,6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정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희상

1. 3월2일 가정방문 시작(방문계획은 별도 게시계획)
2. 3월9일 예비자교리 시작: 매주 목요일 19:00미사후 일요일 공식미사전 09:00

* 성체대회 참가하실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3. 꽃꽂이 봉사 하실분 신청바람(사무실)
 4. 중·고 교리교사 봉사하실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전화번호: 사제관 6-2335 사무실 87-0441
- 지난주봉헌금: 325,780원 □교무금: 513,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수현
유치원 84-8347·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선태
사제관 82-6232·82-7245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 하드립니다. * 89년 교무금신입바람
1. 사순절 특강: 28일(화) 저녁8시·주제-참된자기 회개·강사-조철현신부 2.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3. 꾸리아회의: 오늘 오후2시
 4. 수녀님이동: 가신분-이마리아 김요셉씨나 수녀님 오신분-홍태라 김다미안수녀님 환영식-오늘 공식미사후
 5. 성탄관공교리시험결과 수상자: 계시관에 게시 시상식-공식미사후 6. 청년연합회 임원월례회의: 27일(월) 저녁8시
 7. 신자등반대회: 3월1일(수) 8시30분출발(성당집결) 목적지-모악산 회비2,000원 신청바람
 8. 구역봉사자 모임: 3월5일 저녁미사후 9. 글라리엄제회: 3월4일(토) 1시30분 10. 가정방문: 28일 서교동1,2반 3월2일-서교동4반 □지난주봉헌금: 1,176,050원 □교무금: 785,000원 □나눔의 헌금: 64,07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0229

1. 신학생후원회 신입자(1구좌·만원): 문정숙1, 본당신부님10 장학회 신입자(1구좌·만원)-본당 신부님10
 2. 가정방문: 28일(화)전-24,25반 후-26반 3월2일(목)전-27반 후-28,29반 3일(금) 후-30반
 3. 사목회: 3월3일(금) 오후6시30분(사제관)
 4. 예비자특별교리: 3월2일~24일(매일) 오후7시40분-8시40분
 5. 송학사님 송학사님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가십니다.
 6. 다음주: 구역장 월례회의 제대회(공식미사후)
 7. 사제관 수녀원 비품 신입자: 정형석-방석15개
 8. 오늘: Cu 회의(오후3시)
 9. 차주전례: 해설-문치구 독서①권학일 ②이윤례 봉헌-김종문부부
- 지난주봉헌금: 315,210원 □교무금: 343,000원
□자선헌금: 31,650원 □신축금신입총액: 143,134,836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1. 한마음 한몸 운동에 함께 동참합니다(성미봉헌 돼지저금통 살찌우기) 2. 신자가정방문: 화-성당동편 수-성당서편 목-금-효동마을 3. 평일미사 참여운동: 1신자 1단체 가입운동에 동참합니다. 4. 구역봉사자 모임: 금주 수요일 11시 까리따스 회-금주 금요일 10시40분
5. 성체조배: 목요일 10시-오후2시 십자가의 길-금 오후7시(레지오 주관)
6.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일-10:30(4호실) 목-오후7:30(4호실) 7. 성당청소 담당: 금주-삼천동 양지마을 다음주-쌍용주택 * 성모기사회: 3월4일 오전10시 직장인 청소년 오후6시
8. 주일학교: 오후2시30분-5시 중교생 교리및 선행회-오후5시
9. 교무금 수입: 411세대 신축현금 19,262,000원 □지난주봉헌금: 747,830원 □교무금: 530,000원 □금요헌금: 69,840원 □미수금: 58,00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1. 축! 까리따스 분원 설립: 김야우스당 박제오르지아수녀님을 환영합니다.
 2. 사순절 특강(참된자기 회개): 2월28일(화) 오후8:00 전통성당
 3. 여성분과회의: 3일 금요일 어머니미사후
 4. 예비신자 환영식: 차주 공식미사후
 5. 십자가의 길: 사순절 매일미사 30분전
 6. 춘관공일정: 2일(목) 태하, 한성 3일(금) 안심리, 우진1반
- 금주전례: 해설-노옥자 독서①정상수 ②조숙례
기도-권일만 표순례
차주전례: 해설-문옥선 독서①김영호 ②최상선
기도-김홍두 정영호
□지난주봉헌금: 391,330원 □교무금: 795,000원